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배연근((주)공생공소 농업회사법인 대표)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1. 11. 2

배연근 ((주)공생공소 농업회사법인 대표)

충남 농업지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또한 세계경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보와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에는 사회적경제인식이 빠른시일내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 현 농촌사회의 문제로서는 대농과 소농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농 중심의 규모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더 심한 농촌경제 사회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대농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화하면서 노동비 상승 원자재 값 상승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물가인상대비 제자리거나 하락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규모화 되었어도 순수익은 증가하지 못하는 실태이다. 더욱 더 문제되고 있는 소농 및 고령농에 대한 농촌경제사회의 문제이다. 이분들은 열심히 농사짓지만 그에 대한 수익이 되지 않아 경제적 지위가 매우 하락되고 있다. 고령농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분들에게 지속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망과 제가격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분들에게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켜 사회적 경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소농중심의 농산물센터나 농민장터 농민텃밭을 저렴하게 임대 및 소농/고령농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을 가공거점센터 건립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는 지역 내 경제순환경제체제를 일으킬 수 있는 로컬푸드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농촌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의 옛 품앗이 두레는 농촌에 없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이 모든 것을 없애 버렸다. 다시 우리 농촌의 협업 상생할수 있는 문화 복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 농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

현재 지식인들층에서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홍성의 풀무학교를 예를 들면 그곳에 지식인들이 귀농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다 차 있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들이 어려운농촌에 유입이 되어 농촌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는 농촌총각이 많이 있어 외국에 계신 분들이 농촌총각과 결혼을 하여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

농촌에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농촌에는 유교적 문화에 대한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로 가정이 파탄을 겪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중 또 다른 한가지는 신부와 신랑 학력차에 의한 지식차이이다. 그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지적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예로 필리핀 이주여성은 영어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있어 농촌 지역에 방과후 수업에 이 필리핀여성이주민을 활용하여 농촌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각계 이주여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